

지역 매아리

정읍 단풍미인소핑몰

추석맞이 명절 할인 대잔치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마켓 1번지인 단풍미인소핑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된다. 명절에 인기 있는 한과와 한우, 떡, 잡곡 선물세트 등 최대 50% 할인과 5+1, 10+1 등 묶음 할인도 진행한다.

또 특기할인 이벤트인 블랙데이도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단풍미인소핑몰에 입점한 상품은 품질과 포장 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다"며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우체국 안전배송 서비스로 배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소핑몰(http://dampomgml.jeongup.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063-532-4345, 063-535-4345), 스마트폰(m.dampomgml.com)으로 가능하다.

한편 2012년 1월 9일에 오픈해 올해 8주년을 맞은 단풍미인소핑몰은 그동안 5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05개 입점업체와 800여개의 판매상품 등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자체 운영 농특산물 소핑 1번지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지역 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건강조사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총 224개 항목으로 흡연과 음주, 운동,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그리고 사고, 중독, 활동 제한, 삶의 질 등이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만19세 이상 900명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1 면접 조사(CAPI)와 신체 계측(키, 몸무게), 혈압 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지역 건강통계는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과 수행, 평가에 활용된다"며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사업 완료(2020. 3.)후 일괄 파기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상담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12월 준공 목표 막바지 공사 '한창'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975㎡ 규모로 신축 중이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상담실과 검진실, 가족 카페, 프로그램실, 인지·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치매상담을 비롯해 등록서비스 지원에서부터 조기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상담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치매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정읍지역 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시 통계에 따르면 정읍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치매전문병동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공사가 완료되면 치매예방 사업과 치매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치매 환자 상담운영, 가족 카페 운영 등에 대해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13일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신축(노인복지타운 내) 공사현장과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노인분들의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치료와 치료 후 상태 악화 방지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시민과 치매 노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마실길 제2코스에 붉노랑 상사화가 이달 하순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무릉도원을 보는 듯한 황홀경'

부안 마실길 제2코스, 붉노랑 상사화 이달 하순 절정

부안군은 특색 있는 테마 길로 조성한 부안 마실길 제2코스(송포~성천)에 붉노랑 상사화가 이달 하순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부안군은 부안 마실길 제2코스의 붉노랑 상사화가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붉노랑 상사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땐 잎이 없어 '있는 꽃을, 꽃은 잎을 그리

워 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매년 가을로 접어들어는 시기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도 유명한 서해바다 일몰과 함께 붉노랑 상사화를 감상할 수 있어 무릉도원을 보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 마실길 제2코스와 함께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이 있는 해안가 군부대 초소 및 철조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부안 마실길 제3코스(성천~벽포항) 등도 인기 명소다. /부안=김석진기자

치매전문병동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노인분들의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매 환자의 치료와 치료 후 상태 악화 방지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시민과 치매 노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질적인 주차난 숨통 트였다

고창군청 제2주차장 본격 운영

고창군이 군청사 옆(옛 미풍정 음식점 일원) 부지에 군청 제2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2166㎡에 주차가능 대수는 78대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22억원이 투입됐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착수 후 2년 여만에 준공하게 됐다.

그간 고창군청 광장주차장은 84면에 불과해 민원인과 인근 상가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군은 2017년 5월 인근 부지를 매입해 공사에 착수했지만, 입주자가 이점을 거부하는 등 법정소송 끝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군청 제2주차장 78면의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 8면, 장애인주차구역 2면, 경차구역 7면이 함께 조성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증



가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현재(7월말 기준) 노상주차장 11개소에 3418면, 노외주차장이 23개소 1190면이 조성돼 무료로 활용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오늘 복분자클러스터단지서 복날 행사 열어

(사)고창복분자6차산업화사업단이 복분자로 복달임 음식을 대체 개발하고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단지에서 고창복날 행사를 연다.

이번 고창복날 행사는 고창 복분자를 소재로, 고창면의 복날음식을 개발·보급에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편식 레시피 개발과 식도락 관광상품으로 산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오늘 고창군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고창군지부, (사)고창복분자6차산업화사업단, 재)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와 '복분자 레시피 보급 MOU'를 진행한다. 이튿날(17일)에는 총 12팀이 참여하는 복분자 복달임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복분자를 활용한 음식개발로 인기를 끈 작품은 향후 계약체결을 통해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고창복분자6차산업화 관계자는 "이번 고창복날을 통해 복분자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고창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외식업 아카데미 교육

정읍시 보건소가 14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했다.

외식업 아카데미 교육은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정읍의 음식 관광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무·재무관리와 매뉴얼관리, 성공사례 발표, 서비스 교육 등 이론교육과 소고기구이 외식업 체에서 활용 가능한 메뉴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변화하는 음식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식업주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외식업 아카데미는 내달 6일까지 소고기구이 외식업소 30곳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contents.